언해자료 『杜律分類』와 『杜草堂詩』에 대한 고찰

李 賢 熙*

1. 머리말
2. 《杜律分類》에 대한 고찰
3. 『杜草堂詩』에 대한 고찰
4. 맺음말

1. 머리말

1990년대 들어 국학 방면에서 杜詩 및 『分類杜工部詩諺解』(앞으로 『두시언해』라 줄여 부르기로 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듯하다. 두시의 주석서와 그 언해문에 대해 연구를 행한 논문·단행본을 비롯하여, 주석작업과 색인작업을 행한 업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어학 방면에서는 그동안 주로 『두시언해』를 대상으로 하여 번역 양상, 주석문의 현현양상, 초·중간본 사이에 보이는 언어사실의 차이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

1997년 5월 23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에서 주관한 학술세미나에서 '두시와 두시언해'라는 주제로 서지학, 한문학, 국어학 방면의 연구성과가 집대성된 일은 그 사이 우리 학계가 두시와 『두시언해』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왔음을 잘 보인 한 실례라 할 것이다. 그 학술세미나에서 鄭在永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李鍾默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두 분에 의해 『杜律分類』와 『杜草堂詩』가 각각 규장각과 장서각에서 새로이 발굴되어 우리 학계에 간략하게 소개된 바 있었다.[1] 두 분의 호의로 필자가 그 두 문헌에 대한 검토를 행하게 되어 그에 대한 간략한 검토결과를 이 글로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 글에서는 이 두 문헌을 『두시언해』의 초간본(1481년) 및 중간본(1632년)과 비교해 가면서 그에 대한 국어학적인 검토를 행하기로 하되, 『두율분류』에 더 무게를 실어 언급해 나가기로 한다. 이 두 문헌은 다 『두시언해』를 기반으로 하여 언해된 듯하다. 그러나 『두시언해』를 완전히 답습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수정을 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그뿐 아니라 이 문헌들을 필사하던 당대의 언어로 언해를 하고 있다는 점도 근대국어를 연구하는 데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준다. 이 『두율분류』와 『두초당시』가 만들어진 시기를 이 글에서는 각각 19

---

* 필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그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글들은 모두 『두시와 두시언해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에 실려 있다. 물론 정재영, 이종묵 두 교수의 글들도 함께 실려 있다.

세기 중반과 18세기 중반으로 추정하게 될 것이다. 이 두 문헌들이 『두시언해』만큼 방대한 양을 자랑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분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근대 국어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杜律分類』에 대한 고찰

『두율분류』는 제목대로 두시 가운데 律詩만을 발췌하여 편집해 놓은 필사본이다. 天·地·人의 3권 3책으로 되어 있는데, 卷天에 56수, 卷地에 71수, 卷人에 86수 하여 도합 213수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문헌은 각 권마다 그 표제명과 내제명이 조금씩 달리 달려 있다. 卷天은 표제명이 '杜律分類', 내제명이 '杜두律률分분類류'로, 卷地는 표제명이 '杜律分類', 내제명이 '分분類류杜두律률'로 되어 있는 데 반해, 卷人은 표제명이 '杜律諺解 釋老'로 되어 있으나 내제명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표제명은 다른 사람에 의해 씌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제명과 내제명의 글씨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卷人의 경우 내제명이 없이 분류명인 '釋셕老로ㅣ라○중이라'가 내제명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표제명이 '杜律諺解 釋老'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卷天의 내제명인 '杜律分類'로써 서명으로 삼은 것은 온당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 『두율분류』는 『두시언해』 중간본을 토대로 하여[2] 약간씩 수정을 가하며 당대의 언어로 언해하였다. 다음에 『두율분류』와 『두시언해』가 대응되는 양상을 표로써 보이기로 한다.[3]

표 1. 『두율분류』 卷天과 『두시언해』의 비교

〈1〉 권 2	〈2〉 권 3	〈3〉 권 3	〈4〉 권 3	〈5〉 권 3
〈6〉 권 3	〈7〉 권 3	〈8〉 권 3	〈9〉 권 3	〈10〉 권 3
〈11〉 권 5	〈12〉 권 6	〈13〉 권 6	〈14〉 권 6	〈15〉 권 6, 권 10
〈16〉 권 6	〈17〉 권 6	〈18〉 권 6	〈19〉 권 6	〈20〉 권 6
〈21〉 권 7	〈22〉 권 7	〈23〉 권 7	〈24〉 권 7	〈25〉 권 7
〈26〉 권 7	〈27〉 권 7	〈28〉 권 7	〈29〉 권 7	〈30〉 권 7
〈31〉 권 8	〈32〉 권 9	〈33〉 권 9	〈34〉 권 9	〈35〉 권 9
〈36〉 권 9	〈37〉 권 9	〈38〉 권 9	〈39〉 권 10	〈40〉 권 10
〈41〉 권 10	〈42〉 권 10	〈43〉 권 10	〈44〉 권 10	〈45〉 권 10
〈46〉 권 10	〈47〉 권 11	〈48〉 권 11	〈49〉 권 11	〈50〉 권 11
〈51〉 권 11	〈52〉 권 11	〈53〉 권 11	〈54〉 권 11	〈55〉 권 11
〈56〉 권 11				

2) 『두율분류』가 『두시언해』 중간본을 토대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3) 아래 표에서 〈1〉식으로 표시된 것은 『두율분류』에서의 순서를 보인 것이고, '권 2' 식으로 표시된 것은 『두시언해』의 권차를 보인다. 시의 제목을 다 적는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편의상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순서로써 제목을 대신하기로 한다.

표 2. 『두율분류』 卷地와 『두시언해』의 비교

〈 1〉 권 13	〈 2〉 권 13	〈 3〉 권 13	〈 4〉 권 13	〈 5〉 권 13
〈 6〉 권 13	〈 7〉 권 13	〈 8〉 권 13	〈 9〉 권 13	〈10〉 권 13
〈11〉 권 13	〈12〉 권 13	〈13〉 권 13	〈14〉 권 13	〈15〉 권 13
〈16〉 권 14	〈17〉 권 14	〈18〉 권 14	〈19〉 권 14	〈20〉 권 14
〈21〉 권 14	〈22〉 권 14	〈23〉 권 14	〈24〉 권 14	〈25〉 권 14
〈26〉 권 14	〈27〉 권 14	〈28〉 권 14	〈29〉 권 14	〈30〉 권 14
〈31〉 권 14	〈32〉 권 14	〈33〉 권 14	〈34〉 권 14	〈35〉 권 14
〈36〉 권 14	〈37〉 권 14	〈38〉 권 15	〈39〉 권 15	〈40〉 권 15
〈41〉 권 15	〈42〉 권 15	〈43〉 권 15	〈44〉 권 15	〈45〉 권 15
〈46〉 권 15	〈47〉 권 15	〈48〉 권 15	〈49〉 권 15	〈50〉 권 15
〈51〉 권 15	〈52〉 권 15	〈53〉 권 15	〈54〉 권 15	〈55〉 권 15
〈56〉 권 15	〈57〉 권 15	〈58〉 권 15	〈59〉 권 15	〈60〉 권 15
〈61〉 권 15	〈62〉 권 15	〈63〉 권 15	〈64〉 권 15	〈65〉 권 15
〈66〉 권 15	〈67〉 권 16	〈68〉 권 16	〈69〉 권 16	〈70〉 권 16
〈71〉 권 16				

표 3. 『두율분류』 卷人과 『두시언해』의 비교

〈 1〉 권 9	〈 2〉 권 9	〈 3〉 권 9	〈4〉 권 9	〈5〉 권 9
〈 6〉 권 9	〈 7〉 권 9	〈 8〉 권 9	〈9〉 권 9	〈10〉 권 9
〈11〉 권 9	〈12〉 권 9	〈13〉 권 9	〈14〉 권 9	〈15〉 권 9
〈16〉 권 10	〈17〉 권 10	〈18〉 권 10	〈19〉 권 10	〈20〉 권 10
〈21〉 권 10	〈22〉 권 10	〈23〉 권 10	〈24〉 권 10	〈25〉 권 10
〈26〉 권 10	〈27〉 권 10	〈28〉 권 10	〈29〉 권 10	〈30〉 권 10
〈31〉 권 10	〈32〉 권 10	〈33〉 권 10	〈34〉 권 10	〈35〉 권 11
〈36〉 권 11	〈37〉 권 11	〈38〉 권 11	〈39〉 권 11	〈40〉 권 11
〈41〉 권 11	〈42〉 권 11	〈43〉 권 11	〈44〉 권 11	〈45〉 권 11
〈46〉 권 11	〈47〉 권 11	〈48〉 권 11	〈49〉 권 11	〈50〉 권 11
〈51〉 권 11	〈52〉 권 11	〈53〉 권 11	〈54〉 권 11	〈55〉 권 12
〈56〉 권 12	〈57〉 권 12	〈58〉 권 12	〈59〉 권 12	〈60〉 권 12
〈61〉 권 12	〈62〉 권 12	〈63〉 권 12	〈64〉 권 12	〈65〉 권 12
〈66〉 권 12	〈67〉 권 12	〈68〉 권 12	〈69〉 권 12	〈70〉 권 12
〈71〉 권 12	〈72〉 권 12	〈73〉 권 12	〈74〉 권 12	〈75〉 권 12
〈76〉 권 12	〈77〉 권 12	〈78〉 권 12	〈79〉 권 12	〈80〉 권 12
〈81〉 권 12	〈82〉 권 12	〈83〉 권 12	〈84〉 권 12	〈85〉 권 12
〈86〉 권 12				

위의 표들을 볼 때, 『두율분류』는 원칙적으로 『두시언해』 권 2부터 권 16까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두율분류』 卷天이 『두시언해』의 권 2부터 권 11까지에서 발췌한 것이고, 卷地가 『두시언해』 권 13부터 권 16까지에서 발췌하여 차례대로 배열해 놓은 것인 데 비해, 卷人은 앞의 두 권에서 빠진 율시를 보충할 목적으로 『두시언해』 권 9, 10, 11, 12의 율시들을 수록하였다.

그런데 『두율분류』가 『두시언해』를 토대로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율시들이 여러 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저기 나누어 수록하기도 하고 일부만을 채택하여 싣기도 하였다. 그

리고 배열하는 순서에서 약간의 변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두시언해』 권 9의 〈玉臺觀二首〉는 앞 首는 『두율분류』 卷天의 〈38〉번에 수록되고 뒷 首는 卷人의 〈15〉번에 수록되었으며, 『두시언해』 권 9의 〈秦州雜詩十七首〉는 13수만이 『두율분류』에서 채택되었는데, 그나마 11수는 卷地의 〈13〉번에, 2수는 卷人의 〈14〉번에 수록되었다. 『두시언해』 권 9의 〈九日五首〉는 두 수만 채택되었는바, 첫째수는 卷天의 〈54〉번에, 둘째 수는 卷人의 〈40〉번에 나뉘어 수록되었다.

그뿐 아니라, 여러 首로 되어 있는 것 가운데 일부만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卷天의 〈54〉번은 원래 『두시언해』에서는 5수였지만 첫째 수만이 대상이 되었다. 卷地의 경우, 〈25〉번과 〈34〉번, 〈48〉번은 『두시언해』에서는 2수였던 것이 뒷 수만 대상이 되었고, 〈39〉번은 10수였던 것이 세 번째와 여덟 번째 수가 빠지고 8수만이 대상이 되었으며, 〈40〉번은 5수 가운데 앞 4수만, 〈43〉번은 3수 가운데 앞 2수만 대상이 되었다. 卷人의 경우, 〈23〉번은 5수 가운데 앞 4수만, 〈27〉번은 3수 가운데 첫 수만, 〈28〉번은 5수 가운데 두 번째 수가 빠진 4수만, 〈61〉번은 두 수 가운데 첫 수만 채택되었다.

그 외에, 시의 배열순서가 뒤바뀌기도 하였다. 卷地의 〈27〉번과 〈28〉번, 그리고 〈33〉번과 〈34〉번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또, 여러 수로 된 것 가운데는 전혀 다른 시가 잘못 끼어 들어가기도 하였다. 卷人의 〈59〉번 〈八月十五日二首ㅣ라〉의 두 번째 수는 다른 시 〈七月夜對月〉이 잘못 들어간 것이다.

『두율분류』가 『두시언해』를 토대로 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두시언해』의 초간본을 참조하였는지, 중간본을 참조하였는지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미 『두시언해』를 자기 식으로 잘 소화하여 또다른 異本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는 『두율분류』가 중간본을 참조하였음을 극명하게 잘 보여 준다.

(1) ㄱ. 잠간 안즈락 ᄂᆞᄂᆞᆫ 가마괴ᄂᆞᆫ 두어 ᄉᆡᆺ기를 더부렷고 (천 22ㄱ)
ㄱ′. 잠간 안즈라 ᄂᆞᄂᆞᆫ 가마괴ᄂᆞᆫ 두어 ᄉᆞᆺ기를 더브렛고 (초간본 7:1ㄱ)
ㄱ″. 잠간 안즈락 ᄂᆞᄂᆞᆫ 가마괴ᄂᆞᆫ 두어 ᄉᆞᆺ기를 더브렛고 (중간본 7:1ㄱ)
ㄴ. 荊州 鄭審 薛據ᄂᆞᆫ 信書을 보ᄂᆡ오미 ᄀᆞᆺ가오니 (천 25ㄱ)
ㄴ′. 荊州ㅅ 鄭審 薛據ᄂᆞᆫ 書信을 보내요미 ᄀᆞᆺ가오니 (초간본 7:13ㄱ)
ㄴ″. 荊州ㅅ 鄭審 薛據ᄂᆞᆫ 信書을 보내요미 ᄀᆞᆺ가오니 (중간본 7:13ㄱ)

중세국어에서 중단을 뜻하는 연결어미는 '-(ᄋᆞ)라'와 그것에 첨사 'ㄱ'이 덧붙은 '-(ᄋᆞ)락'이 함께 쓰였는데, 전자는 드물게 보이는 편이다. 그러나 근대국어 단계에는 '-(ᄋᆞ)라'는 사라지고 '-(ᄋᆞ)락'만 쓰이게 되었다. (1ㄱ, ㄱ′, ㄱ″)의 예가 그 사정을 잘 보인다. (2ㄱ)의 '信書을'은 '書信을'로 나타나야 할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書信을

(천 31ㄴ)'로 나타난다. 『두시언해』의 초간본에는 올바른 어형이 사용되었지만 중간본에는 잘못된 어형이 사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두율분류』가 『두시언해』 중간본을 참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두율분류』는 『두시언해』와 비교해 볼 때, 원시와 언해문의 제시양상에서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두시언해』는 한자에 한자음을 전혀 달아 주지 않는 데 비해 『두율분류』는 모든 한자에 당대의 한자음을 달아 놓았다. 심지어 시의 제목에까지 한자음을 달고 언해하였다. 두 문헌이 어떤 독자층을 상정하여 만들어졌는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시언해』에서는 원시나 언해문이 원칙적으로 두 句가 한 聯으로 對句가 되어 짝을 이루어 제시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네 句가 한 聯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4] 한 聯이 종결되는 곳에는 반드시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가 사용된다.[5] 그에 비해 『두율분류』는 항상 두 句씩 짝을 지워 놓았다. 그 때문에 한 단위[6]의 마지막 부분에 종결어미가 통합되지 않고 연결어미가 통합되어 나온 예들이 보이기도 한다. 앞으로 한자에 달리는 한자음 표기는 필요할 경우에만 제시하고 그 밖에는 한자만 표기하기로 한다.

(2) ㄱ. 爲人性僻耽佳句ᄒᆞ야 語不驚人死不休ㅣ러니 / 사ᄅᆞᆷ 되오미 性이 편벽ᄒᆞ야 아ᄅᆞᆷ다온 글句ᄅᆞᆯ 耽ᄒᆞ야 말ᄉᆞᆷ을 사ᄅᆞᆷ이 놀나지 아니ᄒᆞ거든 죽어도 마지 아니ᄒᆞ더니(천 2ㄴ)

ㄱ'. 老去詩篇渾漫興호니 春來花鳥莫深愁ᄒᆞ라 / 늙어 가매 詩篇을 다 슉졀업시 興許ᄒᆞ노니 봄이 오ᄆᆡ 곳과 새ᄂᆞᆫ 깁히 근심ᄒᆞ지 말라 (천 2ㄴ)

ㄱ". 내 사ᄅᆞ미론 디 性이 偏僻ᄒᆞ야 아ᄅᆞᆷ다온 긋句를 耽ᄒᆞ야
말ᄉᆞᆷ 사ᄅᆞ미 놀라디 아니ᄒᆞ리어든 주거도 마디 아니ᄒᆞ다니
늘거 가맨 詩篇을 다 슉졀업시 興許ᄒᆞ노니
보ᄆᆡᆺ 곳과 새와ᄂᆞᆫ 기피 시름ᄒᆞ디 말라 (초간본 3:31ㄱ)

ㄴ.' 韓公本意築三城은 擬絶天驕拔漢旌터니 / 韓公의 세 城 빠흔 본 ᄯᅳᆺ은 天驕子의 漢ᄂᆞ랏 旌旗 빠히ᄅᆞᆯ 끈츨가 비겻더니 (천 9ㄱ)

ㄴ". 豈謂盡煩回紇馬ᄒᆞ야 蒜然遠救朔方兵고 / 엇지 回紇의 ᄆᆞᆯ을 다 어즈러이 ᄒᆞ야 도로혀 朔方兵을 멀리 와 구완ᄒᆞ리라 닐너시리오 (천 9ㄱ)

ㄴ". 韓公의 세 城 손 本來ㅅ ᄠᅳ든
天驕子ᄋᆡ 漢ㅅ 旌旗 빠혀ᄅᆞᆯ 그츄리라 너기더니

---

4) 아주 드물게는 세 句가 한 聯을 이루기도 한다.
5) 한 단위 내에서 대구가 되는 앞 句의 마지막 부분에는 대개 연결어미가 통합되나, 드물게는 종결어미와 조사류가 통합되어 나오기도 한다.
6) 이 경우 '한 聯'이라고 표현하기 어색하기 때문에 '한 단위'라고 표현하였다.

엇뎨 回紇의 ᄆᆞᆯ 다 어즈러이 ᄒᆞ야ᅀᅡ
도ᄅᆞ혀 朔方 兵을 머리 救ᄒᆞ리라 너기리오 (초간본 5:45ㄴ)

『두시언해』에는 (2ㄱ″, ㄴ″)처럼 네 句가 한 聯이 되어 제시되는 데 비해, 『두율분류』에는 두 단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각각 분리되어 있는 (2ㄱ)과 (2ㄱ′), (2ㄴ)과 (2ㄴ′)이 합쳐져야 『두시언해』처럼 온전한 한 聯이 이루어지는 것이다.[7]

『두율분류』에는 한시에 달린 구결과 일치하지 않는 언해문도 꽤 보인다.

(3) ㄱ. 草木變衰行劒外오 / 草木이 變ᄒᆞ야 ᄉᆡᆫᄒᆞ거ᄂᆞᆯ 劒閣 밧긔 行ᄒᆞ노니 (천 1ㄱ)
ㄴ. 宮中每出歸東省ᄒᆞ야 / 宮中에셔 ᄆᆡ양 ᄂᆞ와 東省에 가ᄆᆡ (천 13ㄴ)

이러한 예는 이 문헌에서 꽤 많이 보인다. 직역을 위주로 하던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도 구결문과 언해문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드물지 않게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 현상이 『두율분류』에만 특이하게 나타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두율분류』에 달린 한자음은 중세국어 시기의 한자음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州'는 중세국어 시기에 '쥐'와 '쥬'의 두 음이 경쟁하였지만,[8] 이 시기에는 '쥬'로 거의 단일화한 면모를 보인다. '州(쥬)에(천 4ㄴ)'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드물기는 하나 '쥐' 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荊(형)州(쥬) ㅣ로셔(인 34ㄴ)'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左'는 그 한자음이 '자'로서 중세국어에서와 동일한 한자음을 보였지만 언해문에서는 '좌편'으로 반영하여 현대국어적인 음을 보이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晩(만)出(출)左(자)掖(ᄋᆡᆨ)니라 / ᄂᆞᆺ기야 左(자)掖(ᄋᆡᆨ)으로 ᄂᆞ오니라(천 12ㄱ)'가 그 주석문에서는 '좌편에 門下省이 잇고'와 같이 한글로만 표기되면서 '좌' 음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刻'은 한자음이 '긕'으로 중세국어에서와 동일한 음을 보이고 있다. 주석문의 '晝(쥬)刻(긕) (천 13ㄱ)'이 언해문에서는 '낫졔 루긕을(천 13ㄴ)'로 나타난다. '省'은 그 음이 'ᄉᆡᆼ'으로만 달려 있다[예: 東(동)省(ᄉᆡᆼ) (천 13ㄴ)].

주석문은 『두시언해』의 것을 토대로 하여 언해하여 제시하였다. 『두시언해』 것을 양을 줄이지 않고 제시하거나, 약간 줄여 제시하거나 하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

7) 『두시언해』에서 세 句가 한 聯을 이루는 것이 『두율분류』에 대응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두시언해』에서도 세 句가 한 聯을 이루는 일은 古詩에서만, 그것도 매우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律詩만을 대상으로 한 『두율분류』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8) 중세국어에서는 '州', '取', '趣', '水' 등과 주로 'ㅅ, ㅈ, ㅊ' 등의 치음을 두음으로 가지는 한자가 'juj' 계통의 음으로 읽히기도 하고 'ju' 계통의 음으로 읽히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이 'juj'의 음을 표시하기 위해 '州ㅣ', '取ㅣ', '趣ㅣ', '水ㅣ'처럼 한자 뒤에 딴이를 덧붙여 표기하기도 하였다. 드물지만, '介ㅣ', '个ㅣ'처럼 치음의 두음을 가지지 않는 한자도 그러한 표기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4) ㄱ. 晉 顧愷之의 字는 虎頭ㅣ니 丹靑을 잘 ᄒᆞᄂᆞᆫ지라 (인 1ㄴ)

ㄱ′. 晉ㅅ 顧愷之의 字ㅣ 虎頭ㅣ니 工於丹靑ᄒᆞ니라 (초간본 9:24ㄱ)

ㄴ. 큰 칼 머리예 고리 이스니 도라 오단 말리라 (인 30ㄴ)

ㄴ′. 大刀頭에 有環ᄒᆞ니 謂還也ㅣ니 今折則言不還也ㅣ라 (초간본 12:5ㄴ)

(4ㄱ) 유형은 『두시언해』의 주석문을 토대로 하여 양의 축소 없이 언해한 것이고, (4ㄴ) 유형은 양을 축소하여 언해한 것이다.

제목의 언해에는 '-니라' 형과 '-다' 형이 공존한다.

(5) ㄱ. 早起라 / 일즉 이러나니라 (인 13ㄴ)

ㄴ. 因許八ᄒᆞ야 奉寄江寧旻上人이라 / 許八을 因ᄒᆞ야 江寧 旻上人의게 奉寄ᄒᆞ다 (천 31ㄴ)

제목의 마지막 구절에는 구결 '-이라'가 붙어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後遊ㅣ라 / 後에 놀미라(인 4ㄴ)'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용언의 서술성을 살려 '遊修覺寺ㅣ라 / 修覺寺의 노노라(인 4ㄱ)'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두율분류』에 나타나는 표기양상과 음운현상은 근대국어의 다른 문헌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중철 표기 및 혼철 표기가 빈번히 나타나며, 'ㆍ'의 비음운화에 따라 문자 'ㆍ'와 'ㅏ'가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쓰이는 현상이 매우 많이 보인다. 종성의 'ㅅ'을 표기상 빼어 버리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는바, 그 역의 현상도 함께 보인다.[9] 이 때문에 속격조사 '-ㅅ'이 쓰여야 할 곳에 표기되어 나오지 않는 예도 많이 보인다. 복합조사 '-엣'도 '-ㅅ'이 수의적으로 빠져 버리고 표기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에'가 마치 속격조사인 것으로 오인될 만한 예도 많이 보인다.[10] 한자어를 표기할 때 '都(도)셩과 고을이라(지 7ㄱ)'나 '허空(공)은(인 38ㄱ)'처럼 한자와 한글을 섞어 사용하는 일도 빈번하였다. 음절말 중화현상, 구개음화 현상(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ㄴ-구개음화), 원순모음화 현상, 전설모음화 현상, 움라우트 현상을 반영한 표기도 많이 보인다. 그에 따라 일부 음운현상과 관련하여 역표기 현상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

9) 이 문헌에는 '나맛도다, 나마쏘다, 나마도다'의 세 유형의 표기가 공존한다. '나마도다'는 종성 위치의 'ㅅ'이 수의적으로 빠진 모습을 보인다. 역으로 원래 'ㅅ'이 없어야 할 위치에 'ㅅ'이 나타나는 예들도 보인다. '나맛시며(천 16ㄱ)'는 원래 '나마시며'로 표기되어야 할 것인데 'ㅅ'이 더 들어간 표기를 보이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런 표기양상과 이른바 전설모음화현상이 어우러져 '-앗-'과 '-아시-'가 단일화하여 선어말어미 '-았-'이 형성되었으며, 동사 '잇-'과 '이시-'가 단일화하여 어간 '있-'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이현희(1994ㄴ)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사실상 '-에'가 속격조사인 것으로 이해될 만한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로혀 回紇 군ᄉᆞ에 힘을 닙어 河北에 난을 평정ᄒᆞ니라(천 9ㄱ)'에서 '군ᄉᆞ에'는 "군사의"로 이해됨직하고, '河北에'는 "河北의"로 이해됨직한 것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군ᄉᆞ에'는 처격표현이 여격표현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河北에'는 '河北엣'에서 종성 'ㅅ'이 수의적으로 빠진 표기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한두 가지 현상에만 주목해 보기로 한다. 원래 중세국어에서 종성에 형태음소 'ㄷ'을 가지고 있었던 명사는 근대국어 시기에는 '뜻을'처럼 분철표기될 수 있었다. 이 표기만 보면 종성의 'ㄷ'이 'ㅅ'으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쯔들'식의 표기[11]나 '쯔지'식의 표기[12]를 고려하면, '뜻을'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성의 형태음소는 'ㄷ'이었다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주로 '버히-'(斬)로 나타났던 동사는 이미 15세기 말에서부터 '베히-'로도 나타났다. 흔히 '막다히'가 '막대'로, '즉자히'가 '즉재'로 줄어들었듯이, '버히-'가 '베-'로 줄어들었다고 파악하기도 하나 이 예는 제2음절의 'i' 모음의 영향으로 제1음절에 'j'가 더 개재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8세기 국어에서부터 보이는 '져녁'(夕)은 이 문헌에서는 주로 '저역'으로 나타난다. ㄴ-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된 예라고 할 것이다. '錫杖 지퍼 언제 예 왓ᄂᆞ요(인 1ㄱ)'에서처럼 의문형어미 '-뇨'가 '-요'로 표기되어 나오는 것도 동궤의 현상이다.[13]

'올ᄒᆞ-', '만ᄒᆞ-' 등은 이 시기에 이미 '옳-', '많-' 등으로 어간의 재구조화를 경험하였다. 그에 비해 'ᄀᆞᆮᄒᆞ-'는 'ㄱ티여'나 'ㄱᆞ티여'식으로 여전히 예전의 2음절 어간을 유지한 어형을 많이 보인다. '머믈-'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사용되었으나, 어간의 확대를 경험하여 '머므르-'로도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머므러 잇도다(천 12ㄴ)'로 나타나기도 하고, '머믈럿도다(천 30ㄱ)', '머믈러(천 31ㄱ)'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 문헌에는 주격조사 '-가'가 많이 나타나며, 처격조사로는 '-예', '-ᄋᆡ/의', '애/에'가 다 사용되기는 하지만, 'ㅣ' 모음 뒤에서 '-예'가 사용되지 않고 '-에'가 사용되는 예가 많이 보인다. 주격조사 '-이'가 쓰여야 할 곳에 '-ㅣ'가 쓰인다든가 '-ㅣ'가 쓰여야 할 곳에 '-이'가 쓰인다든가 하는 일도 빈번히 보인다. 이것은 대격조사 '-을'과 '-를'이 각각 사용될 곳이 뒤바뀌는 현상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은 다 근대국어 문헌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계사어간이 모음어간 뒤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도 빈번히 나타난다. '가을 홍 여덟 슈라(천 13ㄴ)', '王侯의 집은 다 새 임ᄌᆞ오(王侯第宅皆新主ㅣ오) (천 13ㄴ)'와 같은 예가 그것을 잘 보인다.

연결어미 가운데에는 '-ㄴ딘'와 '-(으)려고'가 특이하다. 이것은 원래 '-ㄴ댄'이었던 것인데 근대국어 들어 'ㄴ'의 탈락을 경험하고 '·'와 'ㅏ'가 교체되어 나타나는 표기에 의해

---

11) 이런 유형의 것은 중철 표기에 의해 '벗들'(友)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종성의 형태음소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12) '벗지(천 33ㄴ)'(友)와 같이 구개음화된 어형이 중철표기된 예도 있다. 물론 '뜻디(천 33ㄴ)'처럼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어형도 공존한다. 구개음화 환경이 아닌데도 'ㅈ'을 보이는 예도 있다. '뜻들' 좃차(인 4ㄱ)'이 그 한 예를 보인다.

13) 역으로 '이엿고'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이녓고(천 35ㄴ)'(接)로 표기되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역표기 현상은 어떤 음운변화나 음운현상이 극에 달했을 때 언중들에 의해 과도교정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나온 것이다. 의도를 표현하는 연결어미는 중세국어에서 '-오려'로 나타났으나, 근대국어 단계에는 '-(으)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문헌에서는 '고기자불 사룸은 그믈을 미려고 물근 못 ᄋᆞ리 못닷고(천 24ㄱ)'의 '미려고'처럼 '고'를 덧붙인 채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런 현상은 19세기 중엽 이후의 국어에 보이는 것이었다(졸고 1994ㄴ 참조).

'ᄒᆞ-'의 행동도 중세국어에서와 다른 바가 많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새로이 보인다. '싱각노라(지 3ㄴ)'처럼 '노' 앞에서 'ᄒᆞ-'가 ø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은 앞 시기 문헌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ᄒᆞ-'는 '허-'로도 나타난다. 이것은 19세기 국어 자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졸고 1994ㄴ 참조). 'ᄒᆞ-'가 19세기 자료에서 '허-'로도 나타나는 현상은 'ᄃᆞ려'가 19세기 자료에 '더려'로 나타나는 현상과 평행적이다. 또한, '奉行ᄒᆞ랴ᄂᆞᆫ가(지 2ㄴ)'처럼 상위문의 인용동사 'ᄒᆞ-'가 생략됨으로써 피인용문의 서술어와, 상위문 동사의 어미가 통합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점도 이 문헌이 적어도 19세기 들어 만들어졌음을 말한다 할 것이다.

'ᄉᆞ랑ᄒᆞ-'가 "愛"의 의미만 가지지 "思"의 의미는 가지지 않게 되었다든가, '시름ᄒᆞ-'가 사용되지 않고 대신 '근심ᄒᆞ-'가 쓰이게 되었다든가, '깃ᄒᆞ-'(巢)나 '깃깃-' 대신 '깃드리-'가 사용되었다든가, '두렵-'(圓) 대신 '둥글-'이 쓰이게 되었다든가, '나조(ㅎ)' 내지 '나죄' 대신 '져녁'(혹은 '져역')이 쓰이게 되었다든가 하는 문제는 어휘사와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어휘의 대체 현상은,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16세기에서부터 있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헌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해 온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이제 우리의 결론을 말하자면, 이 『두율분류』가 적어도 19세기 이전에 필사된 자료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헌은 아마도 19세기 중엽 이후에 두시를 공부하던 學人이 『두시언해』 중간본을 교재삼아 공부하다가 율시만을 골라 다른 사람에게도 학습시킬 목적으로 새롭게 만든 문헌일 것으로 짐작된다.

3. 『杜草堂詩』에 대한 고찰

『두초당시』에는 古詩 79수가 필사되어 있다. 그 중 73번째 시와 74번째 시는 언해문을 써 넣을 위치를 공백으로 두고 언해를 행하지 않았다. 두시 원문에 批點과 貫珠가 행해져 있으나 그에 대한 언해는 어떤 사정에 의해 미처 행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두초당시』가 만들어진 순서를 엿볼 수 있다. 먼저 한시 자체를 자기 나름대로 파악하여 이해하고 그를 토대로 하여 『두시언해』를 참조하면서 언해문을 써 넣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두시를 이해해 나간 순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공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초당시』는 〈58〉번까지는 권 1에서부터 순서대로 古詩들을 수록하였는데, 그 뒤에는 빠진 것을 보충할 목적으로 여기저기서 무작위로 골라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 준다.[14]

표 4. 『두초당시』와 『두시언해』의 비교

〈 1〉 권 1	〈 2〉 권 1	〈 3〉 권 1	〈 4〉 권 2	〈 5〉 권 3
〈 6〉 권 3	〈 7〉 권 3	〈 8〉 권 6	〈 9〉 권 6	〈10〉 권 7
〈11〉 권 8	〈12〉 권 8	〈13〉 권 8	〈14〉 권 8	〈15〉 권 8
〈16〉 권 8	〈17〉 권 9	〈18〉 권 9	〈19〉 권 9	〈20〉 권 9
〈21〉 권 10	〈22〉 권 10	〈23〉 권 16	〈24〉 권 16	〈25〉 권 16
〈26〉 권 16	〈27〉 권 16	〈28〉 권 16	〈29〉 권 16	〈30〉 권 16
〈31〉 권 16	〈32〉 권 16	〈33〉 권 16	〈34〉 권 16	〈35〉 권 16
〈36〉 권 16	〈37〉 권 17	〈38〉 권 17	〈39〉 권 17	〈40〉 권 17
〈41〉 권 17	〈42〉 권 17	〈43〉 권 17	〈44〉 권 17	〈45〉 권 18
〈46〉 권 25	〈47〉 권 25	〈48〉 권 25	〈49〉 권 25	〈50〉 권 25
〈51〉 권 25	〈52〉 권 25	〈53〉 권 25	〈54〉 권 25	〈55〉 권 25
〈56〉 권 25	〈57〉 권 25	〈58〉 권 25	〈59〉 권 13	〈60〉 권 13
〈61〉 권 13	〈62〉 권 14	〈63〉 권 15	〈64〉 권 15	〈65〉 권 15
〈66〉 권 15	〈67〉 권 15	〈68〉 권 15	〈69〉 권 11	〈70〉 권 11
〈71〉 권 11	〈72〉 권 11	*〈73〉 권 4	*〈74〉 권 4	〈75〉 권 22
〈76〉 권 19	〈77〉 권 19	〈78〉 권 19	〈79〉 권 19	(*는 언해문 빠짐)

표 5. 『두시언해』에 대한 『두초당시』의 卷別 대응 편수

권 1 (3편)	권 2 (1편)	권 3 (3편)	권 4 (*2편)	권 5 (0편)
권 6 (2편)	권 7 (1편)	권 8 (6편)	권 9 (4편)	권 10 (2편)
권 11 (4편)	권 12 (3편)	권 13 (0편)	권 14 (1편)	권 15 (6편)
권 16 (14편)	권 17 (8편)	권 18 (1편)	권 19 (4편)	권 20 (0편)
권 21 (0편)	권 22 (1편)	권 23 (0편)	권 24 (0편)	권 25 (13편)

『두율분류』의 한시에는 批點과 貫珠가 표시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한자의 약체 구결자를 달아 두었다. 이 약체 구결자는 원칙적으로 국한문혼용체로 된 언해문과 한문으로 된 주석문에도 군데군데 적여 있다. 한시에는 다양한 구결이 달려 있는 데 비해, 언해문과 주석문에는 '乀'나 '乙', '又' 같은 조사를 표시하는 구결만 달려 있다.[15] 한시에 약체 구결자를 다는 일은 이미 澤風堂 李植의 『杜詩批解』(17세기)에서도 살필 수 있던 것이었다.

앞 장에서 다룬 『두율분류』가 한자마다 한자음을 달아 두었음에 비해, 이 『두초당시』는

14) 표에서 〈1〉식으로 표시된 것은 『두초당시』에서의 제목 대신 순서로써 제시한 것이고, '권 1'식의 표현은 『두시언해』의 권차를 표시한다.

15)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吐蕃 乀 憑陵ᄒᆞ야 氣運 乀 ᄌᆞ못 얼터우니 (14ㄴ)
禁中에 冊을 決斷ᄒᆞ야 房陵乙 詔ᄒᆞ니 (13ㄱ)
채쳐 믄득 湖城又 지나가ᄂᆞᆫ 돗ᄒᆞ도다 (3ㄴ)

한자만 제시하고 한자음은 달아 두지 않았다는 차이를 보인다. 다른 독자에게 읽힐 목적이 아니라, 두시를 공부하던 사람 자신이 두보의 古詩를 이해한 정도를 드러낼 목적으로 이 문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 문헌에는 『두시언해』와 문맥을 달리 파악한 부분도 보인다. '늘근 물이 삿기 된다 호미 다 허ᄒᆞᆫ 마리 아니가(4ㄴ)'의 의문문은 『두시언해』에는 '늘근 ᄆᆞ리 삿기 ᄃᆞ외다 호미 다 虛ᄒᆞᆫ 마리 아니로다(3:51ㄴ)'의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 문맥을 파악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극명하게 잘 보인다.[16]

이 『두초당시』는 『두율분류』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자병서가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점, 첨사 '-ㅁ'이 덧붙은 어형이 쓰였다는 점〔예: '善을 積ᄒᆞ야 니엄 公侯乙 낫놋다(15ㄱ)', 형용사 'ᄂᆞ갑-'이 계속 쓰였다는 점〔예: 엇제 ᄂᆞ가오며 微少ᄒᆞ야 말리오(15ㄱ)〕, '드론ᄃᆞᆫ(3ㄴ)'과 같은 어형은 계속해서 쓰였으나 '請ᄒᆞᆫᄃᆞᆫ' 대신 '請호맨(13ㄱ)'이 쓰였다는 점, '깁 ᄒᆞᆫ 필에 비지 萬錢을 엇지 드르리오(7ㄱ)'에 들어 있는 기형적 명사문이 계속 쓰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면 이 문헌은 적어도 19세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헌에 원순모음화 현상, 구개음화 현상, ㄴ-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예: 녀러(←여러) ᄒᆡ롤(9ㄱ)과 같은 음운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든가, '저퍼 ᄒᆞ고(8ㄱ)', '깃버 ᄒᆞ고(14ㄴ)'와 같이 심리형용사에 '-아 ᄒᆞ-' 구성이 통합하여 심리동사 구성이 형성되는 절차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6세기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문헌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바처럼 『두시언해』 중간본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문헌이 『두시언해』 중간본이 만들어진 1632년 이후부터 19세기 이전 사이의 어느 시기(구체적으로는, 18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초당시』가 『두시언해』 중간본을 토대로 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6) ㄱ. 피ᄯᆞᆷ 내ᄂᆞᆫ 물이 오히려 玉乙 품ᄂᆞᆫ 거ᄉᆞᆯ ᄒᆞᆫ 번 업더져 ᄆᆞᄎᆞᆷ애 損傷ᄒᆞᆯ 고ᄃᆞᆯ 혜아리지 아니호니 (6ㄱ)

ㄱ′. 피ᄯᆞᆷ 내ᄂᆞᆫ ᄆᆞ리 오히려 玉ᄋᆞᆯ ᄲᆞᆷᄂᆞᆫ 거시 ᄒᆞᆫ 번 업더뎌 ᄆᆞᄎᆞ매 損傷ᄒᆞᆯ 고ᄃᆞᆯ 혜아리지 아니호니 (초간본 52ㄱ)

ㄱ″. 피ᄯᆞᆷ 내ᄂᆞᆫ ᄆᆞ리 오히려 玉ᄋᆞᆯ ᄲᆞᆷᄂᆞᆫ 거ᄉᆞᆯ ᄒᆞᆫ 번 업더져 ᄆᆞᄎᆞ매 損傷ᄒᆞᆯ 고ᄃᆞᆯ 혜아리지 아니호니 (중간본 52ㄱ)

ㄴ. 禁中에 冊을 決斷ᄒᆞ야 房陵乙 詔ᄒᆞ니 (13ㄱ)

---

16) 이와 비슷한 유형의 예는 예문 (5)를 통해서도 일부 엿볼 수 있다.

ㄴ′. 禁中에 冊을 決斷ᄒᆞ야 房陵을 請ᄒᆞ니 (초간본 8:17ㄴ)

ㄴ″. 禁中에 冊을 決斷ᄒᆞ야 房陵을 詔ᄒᆞ니 (중간본 8:17ㄴ)

ㄷ. 吐蕃ㅅ 憑陵ᄒᆞ야 氣運ㅅ ᄌᆞᄆᆞᆺ 얼터우니 (14ㄴ)

ㄷ′. 吐蕃이 憑陵ᄒᆞ야 氣運이 ᄌᆞ모 멀터우니 (초간본 8:22ㄴ)

ㄷ″. 吐蕃ㅣ 憑陵ᄒᆞ야 氣運ㅣ ᄌᆞ모 얼터우니 (중간본 8:22ㄴ)

ㄹ. 올히 나ᄅᆞᆯ 싱각ᄒᆞ야 가쥐예 오니 (16ㄱ)

ㄹ′. 올히 나ᄅᆞᆯ ᄉᆞ랑ᄒᆞ야 嘉州에 오니 (초간본 8:27ㄴ)

ㄹ″. 올히 나ᄅᆞᆯ ᄉᆞ랑ᄒᆞ야 嘉州예 오니 (중간본 8:27ㄴ)

(6ㄱ, ㄱ′, ㄱ″)의 예들에는 통사구조상 차이를 보이는 구절이 들어 있는바, 『두초당시』가 『두시언해』의 중간본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6ㄴ, ㄴ′, ㄴ″)의 경우, 원시의 '詔'를 언해한 것이 초간본에는 '請ᄒᆞ니', 중간본에는 '詔ᄒᆞ니'로 되어 있는데 『두초당시』에서는 중간본의 '詔ᄒᆞ니'를 따랐고, (6ㄷ, ㄷ′, ㄷ″)의 경우, 초간본에는 '멀터우니'라는 올바른 어형이 사용되어 있으나 중간본에는 '얼터우니'라는 잘못된 어형이 사용되어 있는바, 『두초당시』에서는 이 잘못된 중간본의 어형이 그대로 답습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두초당시』가 『두시언해』 중간본에 의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간본의 한자음을 답습한 (6ㄹ)의 것도 그러한 해석에 도움을 준다.

주석문은 『두시언해』의 것을 토대로 하였으나 『두시언해』에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던 주석문을 주로 한문으로만 고쳐 실었다. 간혹 한문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은 『두시언해』의 주석문을 그대로 따른 곳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두초당시』는 두시 가운데 고시만을 발췌하여 공부할 목적으로 새로이 언해를 행한 문헌이라고 할 것이다. 『두시언해』 중간본을 토대로 하였으면서도 당대의 언어로써 언해를 행하고 두시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으면 가끔이기는 하지만 수정을 가하기도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새 자료 『두율분류』와 『두초당시』를 대상으로 하여 국어학적으로 간략한 검토를 행하였다. 그 결과 『두율분류』는 19세기 중엽 이후의 자료인 것으로, 『두초당시』는 18세기 중엽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문헌들은 우리 나라에서 『두시언해』의 중간본을 바탕으로 각각 율시와 고시만을 발췌하여 공부한 하나의 흔적을 보인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문헌들은 두시의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국어사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어 시기에 한글로 필사되어 나온 자료가 꽤 많이 존재한다. 양으로 하면 오히려 刊本으로 나온 자료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다. 대개 간본이 보수적인 언해양상을 보이는 데 비해, 필사본은 비교적 자유로운 언해양상을 보이거나 당대의 언해를 그대로 반영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필사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행해짐으로써 국어사 연구가 한층 활발해지고 근대국어 시기의 언어현실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이 『두율분류』와 『두초당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의 일부로서 이루어졌음을 밝혀 둔다.

주요 참고문헌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김완진(1976), 노걸대의 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연구원.

김정아(1993), 15세기 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병희(1982), 국어사 자료의 서명과 권책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이종묵(1997), 두시의 언해 양상, 두시와 두시언해, '97년도 인문연구실(어문분야) 학술세미나, 두시와 두시언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현희(1994ㄱ),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이현희(1994ㄴ),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이현희(미발표원고), 애스턴 구장본 『춘향전』(권지단)의 문법사적 고찰.

이현희 · 이호권 · 이종묵 · 강석중(1997ㄱ), 『두시와 두시언해』 6, 신구문화사.

이현희 · 이호권 · 이종묵 · 강석중(1997ㄴ), 『두시와 두시언해』 7, 신구문화사.

정재영(1997), 두시언해의 문법적 특징, 두시와 두시언해, '97년도 인문연구실(어문분야) 학술세미나, 두시와 두시언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재영(1995), 16세기 국어의 구문에 대한 연구, 신구문화사.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